

눈을 감고 무결점 바이올린 선율을 온전히 느끼다

‘안네 소피 무터 리사이틀’ 리뷰

5년만에 대한공연 클래식 감동 선사 36년 인연 피아니스트 램버트 협연 조화로운 멜로디 환상의 호흡 압도

금빛 드레스를 입은 바이올린 여제가 입장하자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도이치 그라모폰의 앨범에서 만난 것보다 원숙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다.

그가 내리활로 현을 긋기 시작하자 관객 중 일부는 눈을 감았다. ‘무결점’ 선율을 온전히 느끼고 싶어 함께 눈을 감는다.

깃가에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점차 템포를 높여 알레그로에 진입하자 눈을 감았음에도 바이올린 특유의 울림이 전해온다. 연속적인 음을 탄주하는 기교 데타세(Detache)도 선명히 그려진다. ‘찬란’하다.

곡이 끝나고 ‘무결점의 여제’를 본 순간, 관객들의 환호와 ‘브라비(Bravi)’가 들려온다. 5년 만에 대한 공연으로 돌아온 바이올린 여제 ‘안네 소피 무터’는 클래식의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지난 12일 저녁,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은 5년 만에 대한 공연을 펼치는 ‘안네 소피 무터 바이올린 리사이틀’을 감상하려는 관객들로 가득 찼다. 포시즌 기획공연으로 마련된 연주회는 데뷔 48주년을 맞은 소피 무터를 오오편만에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소피 무터는 음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폴라상’을 비롯해 지멘스상, 독일음반상, 일본 로열 임페리얼상

등 클래식계 권위 있는 상을 석권했다. 명장 ‘카리안’의 총애를 받으며 1978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던 ‘소녀’는, 시간이 흘러 1993년 도이치 그라모폰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을 발매하는 등 클래식계 여제로 비상했다.

이번 공연은 36년간 실내와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바이올린 램버트 오키스가 출연해 환상의 앙상블을 선보였다. 이들은 2006년 함께 바이올린 소나타 앨범을 발매하는 등 음악적 여정을 함께해 왔다.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18번 사장조 KV.301’로 공연의 막이 올랐다. 이 곡을 첫 레퍼토리로 선정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터였다.

‘소나타 18번’은 성인이 된 모차르트가 뒤편-만하임 등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주 선율을 동등하게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듬해 파리에서 작곡했다. 그런 연유에서 소나타 18번의 서막 장식은, 바이올린이 공연을 주도한다는 강박을 허물고 두 악기가 모두 ‘주역’임을 함의하는 듯했다.

소피 무터의 바이올린과 램버트의 피아노 선율은 조화로운 멜로디를 주고 받았다. 때로 연주를 일시 정지하는 등 교차 연주의 진수를 보여줬는데, 순간순간 몰입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스트링 듀오’ 협주를 보는 듯한 착각도 들게 했다. 물론 피아노는 건반악기이지만 내부에 스트링을 감춘 ‘현악기’이기도 하다. 두 ‘현악기’가 펼쳐내는 하나의 앙상블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다.

슈베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다장조, D.934’도 울려 퍼졌다. 슈베르트 말년인 1827년 ‘대중을 위한 공연’을 염두에 두고 창작한 작품으로 국내에서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주

미강 등이 협연해 알려지기도 했다.

‘슈베르트 환상곡’은 창작 당시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에도 불구하고 빈에서 혹평을 받았다. 훗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오늘날에는 환상곡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받들었다.

이들은 가곡에서 모티브를 얻은 긴 변주곡 파트는 물론, 작은 가곡 주제의 도입과 경쾌한 본래 주제로의 회귀 등을 섬세하게 들려줬다. 현을 가야금처럼 손으로 튕겨 연주하는 ‘피치카토’도 이어졌다.

이 밖에도 클라라 슈만의 ‘세 개의 로망스 Op.22’도 연주됐는데 부드러운 보잉(운궁법)이 압권이었다. 레스피기 ‘바이올린 소나타, P.110b단조’도 이목을 끄는 작품이었다.

36년간 인연의 소피 무터와 램버트 오키스의 무대는 그렇게 빛을 발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안네 소피 무터(오른쪽)와 협연자 램버트 오키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안네 소피 무터(왼쪽)와 피아니스트 램버트 오키스의 만남. <안네 소피 무터 홈페이지·광주예술의전당 출처>

‘아름다운 시선’이 머무는 곳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 30일까지 나주 천연염색박물관

창조와 아름다운 시선.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름답다면, 의미있는 ‘창조’가 일어난다. 창작은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장복수 작 '고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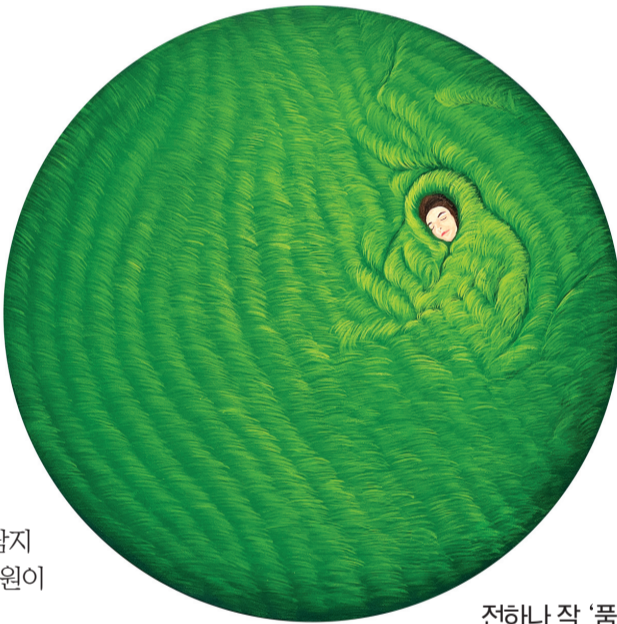
제8회 광주전남창조미술협회(회장 장복수) 회원전 ‘아름다운 시선’이 오는 30일까지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관장 임경렬)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모두 54명 회원들이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염색, 도예, 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을 출품했다.

창조미술협회는 서울에 본회가 있고 18개 지역에 지회가 있다. 회원 수는 2000여명. 광주전남지회는 지난 2019년 창립했으며 현재 100여명 회원이 소속돼 있다.

장 지회장은 “이번 전시는 나주의 아름다운 발판을 비롯해 다양한 풍경 등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며 “화사한 봄기운이 퍼져나가는 시기에 천연염색박물관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선 봄의 향기가 그윽하다. 봄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더라도 계절이 계절인 만큼 ‘봄’을 한아름 안고 있어서다.

장 지회장의 ‘고향’은 아늑하면서도 따사롭다. 한지에 분채로 그린 작품은 특유의 은은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파란색 너머로 보이는 시골의 초가와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옛 마을의 풍경이다. 마을 멀리 안온한 자태로 들어앉은 푸른 산은 남도의 산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유순함



전하나 작 '봄'

과 넉넉함이 깃들어 있다.

곧 만발한 봄꽃들의 향연을 화폭에 담은 배교연 작가의 ‘봄빛사람’은 꽃의 화려함을 품고 있다. 지천으로 피어난 꽃의 향연은 동화 속 풍경을 연상할 만큼 순수하면서도 맑은 감성을 느끼게 한다. 온통 하늘을 뒤덮은 꽃무리는 말 그대로 꽃눈의 그것처럼 신비롭고 몽환적이다.

배경련 관장은 “새로움과 변화의 향기가 가득한 순간 회원들과 아름다운 여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회원 한 분 한 분 담고 열정이 배어있는 작품은 염색 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름답고 정겹게 말해요”

이미레 작가, 장편동화 ‘나팔꽃이 말했어요’ 발간

말을 잘하지 못하는 두 아이가 있다. 한 아이는 오수연, 또 다른 아이는 문영두. 오수연은 말을 더듬지 않으려고 나팔꽃을 보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문영두는 좋은 말을 하려 노력한다.

광주출신 이미레 동화작가가 장편동화 ‘나팔꽃이 말했어요’ (리틀 씨엔톡)를 발간했다.

이번 작품은 나팔꽃을 모티브로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두 아이의 마음을 담았다. 특히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임을 한 지 얼마 안 되고 떠난 동화라 의미가 있다. 또한 작가는 오래 전 살았던 ‘나팔꽃이 핀 집’에 대한 기억 등을 소재로 작품을 엮었다.

이 작가는 “말을 잘한다는 건 더듬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데, 좋은 말은 곧 아름답고 정겨운 말”이라고 했다.

작품 속 두 주인공 오수연과 문영두는 서로 가까워지면서 더듬지 않고 좋은 말을 하게 된다. 두 아이는 마지막에 나팔꽃이 나팔을 불어주고 싶어 하는 말을 찾아낸다. 이들은 함께 이렇게 외친다. “할짝 웃자!”라고.

이 작가는 “이번 동화는 고운 말, 정다운 말이 갈수록 사라지는 이 때에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했다”며 “곱고 아름다운 말을 할 때 아이들 세상은 활짝 웃는 세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도 나팔꽃을 보면 기쁜 마음을 대 보길 바란다”며 “그러면 나팔꽃도 동그란 입으로 말을 건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작가는 광주교육대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1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동화집 ‘시계 수리점의 아기 고양이’, 장편동화 ‘앵앵이와 매암이’, ‘바다를 담은 그릇’, ‘봉주르, 장 발장’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악의 향연- 꽃피는 봄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23일 진악당

산조부터 판소리, 무용과 기악 등 ‘국악’은 그 세부 장르도 다양하고, 선사하는 매력도 각각 각색이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 국악연주단이 ‘국악의 향연- 꽃피는 봄날’을 오는 23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펼친다.

남도 시나위와 판소리에서 발전한 기악합주 ‘산조합주’로 막을 연다. 이어 피리독주 ‘상령산풀이’는 나영성이 들려주는데, 총 9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 ‘평조희상’의 첫 곡 ‘상령산’을 풀어 연주한 곡이다.

판소리 적벽가 중 ‘삼고초려’도 레퍼토리에 있다.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 중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 그의 집을 세 번 찾아가는 내용을 소리(허정승)에 담았다. 고수는 김주원이 말을 예정이다.

가-무-악이 결합된 ‘새산조, 춤’에서는 25현 가야금 연주와 고전무용의 앙상블을 볼 수 있다. ‘22현 가야금을 위한 협주곡’으로 작곡했던 곡이지만 25현 가야금만의 주법과 섬세한 선율로 재구성해 국악원 이임정 단원의 무용을 곁들였다. 또 남도민요 ‘새타령’을 비롯해 무용 ‘부채춤’, 설장구 가락으로 들려주는 ‘김요채류 선반설장구’도 화려한 민영을 전한다.



국악관현악 공연을 선보이는 단원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국악원 정순영 담당자는 “‘딩실 딩실’ 어깨춤을 추게 하는 김요채류 설장구 연주부터 피리 독주곡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히는 ‘상령산 풀이’까지 이번 공연은 폭넓은 국악의 향연을 선사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며 “꽃피는 봄날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전통 소리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료 관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백남준, 로그인을 할수록’ 시상식...대상 정희진 씨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센터장 이경호)은 지난해 12월 주최한 시민 공모전 ‘백남준, 로그인을 할수록’ 시상식을 최근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G.MAP 미디어아트 특별전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 개최를 기념해 백남준의 뜻을 이어받아 시민과 예술을 잇는 취지에서 개최했다.

‘백남준의 작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에서 대상은 정희진 씨, 최우수상 엄다혜 씨, 우수상은 김예린 씨가 수상했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각각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25만원이 수여됐다.

공모전에는 총 67점 작품이 출품됐으며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드로잉, 글, 시, 애니메이션 등으로 표현하여 작품을 응모했다. 이후 선정된 아이디어 공모작은 전문 미디어아트 작가가 재구성하고 영상화해 전시 기간 중 G.MAP 미디어 파사드 월에서 송출되고 있다.

이경호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센터장은 “이번 시민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전을 통해 G.MAP이 시민과 다가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가질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 전시가 시민들에게 백남준의 여러 인간적인 모습과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